

원두값 급등 동네 카페 '올상'

광주지역 공급가격 2천~3천원 가량 올라 소량구매 가격변동 민감...작황부진 원인

“재작년 10년 만에 커피값을 500원 인상했어요. 손님들에게 다음 인상은 10년 후라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예요.”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정 모씨(55·남)는 최근 계속되는 원두값 상승에 시름이 깊다.

11일 광주지역 내 원두 공급업체에 따르면 원두 가격이 올해부터 2,000원에서 3,000원가량 인상됐다.

한 공급업체는 기존 kg당 2만5,000원에 판매되던 원두가 2만8,000원으로 올랐다. 원두 생산단가가 20~30% 상승하면서 올해부터 판매가에도 반영된 것이다.

개인 카페는 원두를 1년 단위로 대량 구매하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달리 소량으로 자주 구매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가격 변동에 민감한 소규모 카페들은 이번 원두값 상승으로 인한 타격이 크다는 반응이다.

정씨는 재작년 커피값을 전체적으로 500원 인상해, 아메리카노 기준 3,000원

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다음 인상은 10년 후입니다’라는 안내문을 걸 정도로 10년 만에 깊은 고민 끝에 결심한 가격 인상이었다.

하지만 정씨는 잇단 원두값 상승에도 또 다시 가격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

정씨는 커피콩을 볶기 전 상태인 생두를 공급받아 직접 로스팅한다. 로스팅 정도에 따라 맛에도 차이가 있지만 생두와 원두의 단가 차이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씨는 “생두와 원두의 공급가는 1만원 이상 차이난다”며 “우리 가게는 생두를 받아 직접 볶기 때문에 3,000원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도 위기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씨는 “커피 한 잔이 밥 값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 업계 사람들이야 이유를 알지만, 고객을 입장에선 커피 한 잔에 5,000원씩 쓰기엔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안다”며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 커피만큼은 부담되지 않는 가격으로 제공

하고 싶었지만, 물가 안정이 되지 않으면 1년 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생두를 받아 쓰는 우리 가게도 이 정도인데 원두를 공급받는 다른 일반 가게들은 더 힘들어한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이 모씨(25·여)는 “한 달 소비에서 커피값으로만 10만원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점심 먹고나서 커피 한 잔 하는게 힘든 직장 생활에 유일한 낙인데, 최근 들어 커피값이 너무 올라 매일 사먹기엔 부담된다”고 말했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외식 물가 품목 39개 중 커피를 제외한 38개 품목이 4.8% 가량 올랐다. 하지만 유일하게 가격이 등졌던 커피마저 최근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국제 원두가는 지난해 4월부터 급격히 오르며, 지난해 미국 뉴욕ICE선물거래소에서 아라비카 원두 선물은 파운드(약 454g)당 2.5달러에 거래돼 10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또한 국제 아라비카 원두의 가격은 지난해 2020년 1파운드 당 1.13달러에서 지난해 12월에는 2.30달러까지 약 2년 만에 2배



11일 오전 광주 동구 한 카페에서 점주업체에서 구입한 생두 자루를 나르고 있다.

/김성훈 기자

이상 치솟았다. 최대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이 가뭄과 냉해 등 이상 기후 현상으로 작황이 부진한 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 물류망에도 차질이 빚어지며 가중됐다.

한편 원두값 상승은 대형 프랜차이즈도 비껴가지 못했다.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는 오는 13일부터

일부 음료 가격을 100원에서 4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아메리카노는 4,100원에서 4,500원, 카페라떼는 4,6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스타벅스 음료 가격 인상은 2014년 7월 이후 약 7년 6개월 만이다.

스타벅스 측은 “지금까지는 시간적적인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가격 인상 요인을 내

부적으로 흡수해왔다”며 “최근 원두 가격 급등 등 각종 원·부자재값과 국제 물류비 상승으로 가격 압박이 누적돼 음료 가격을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맥스 커피믹스를 주력으로 하는 동서식품 역시 커피 제품의 출고 가격을 오는 14일부터 평균 7.3% 인상한다.

/김혜린 기자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주식시장 거래량·대금 감소

시총 코스피 1조1,783억원 증가
한국거래소, 지역 주식거래 동향

지난해 12월 광주·전남지역 주식시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전월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발표한 ‘2021년 12월 광주·전남지역 주식거래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상장기업의 주식거래량은 7억

6,264만주로 전월 대비 16.1% 감소했다.

코스피 거래량은 2억8,700만주로 전월에 비해 22.85%, 코스닥 거래량은 4억 7,900만주로 11.13% 각각 줄었다.

광주·전남 상장기업의 12월 거래대금도 8조8,206억원으로 전월 대비 20.0% 줄었다. 코스피 거래대금은 3조9,400억원(-21.36%), 코스닥 거래대금은 4조 6,700억원(-18.92%)을 기록했다.

광주·전남지역 상장기업의 전체 시가

총액은 23조1,581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2,692억원(5.8%) 증가했다. 코스피시장은 1조1,783억원(6.16%), 코스닥시장은 909억원(3.31%) 각각 늘었다.

주요 기업별로 코스피시장에서는 금호타이어(1,924억원, 17.01%), 부국철강(99억원, 13.13%), 다이아미디자인(77억원, 10.89%) 등이, 코스닥시장에서는 KPX생명과학(574억원, 61.08%), 정다운(198억원, 26.12%), 대신정보통신(82억원, 21.18%) 등이 증

가했다.

전국대비 광주·전남 지역 투자자의 거래량 비중은 1.81%로 전월대비 0.11%p 감소, 거래대금 비중은 1.67%로 전월대비 0.15%p 감소했다.

코스피에서 지역 투자자들은 거래대금 기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거래됐다.

코스닥에서 지역투자자들은 거래대금 기준 위메이드, 다날, 한국비앤씨 등을 중심으로 거래됐다. /황애란 기자

광주상의,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광주상공회의소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NCS는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으로 기업에서는 NCS 도입을 통해 직무 중심의 인사 배치와 객관적인 성과 체계 구축이 가능해지고, 효율적인 인재 채용 시스템과 재작자 역량 강화 프로세스 구축 등 전반적인 인사관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NCS 컨설팅 사업은 올해는 30개사를 선착순으로 모집,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상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이연수 기자

(주)에니트, 기술보증기금 10억 투자유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인 (주)에니트가 기술보증기금에서 10억원의 투자유치를 받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주)에니트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재난 안전관리 분야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ICT전문기업으로, 지난해 6월 창업도약패키지 수혜기업으로 선정됐다. (주)에니트는 AI 기반 재난안전솔루션인 광섬유 음향방출센서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에니트는 지난해 ‘광 검출부

NCS 컨설팅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인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분야별 외부 전문가 2인이 현장을 방문해 해당 기업 관계자와 함께 기업 현황과 직무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무기술서 개발, 역량 기반의 인사체계 구축, 채용·교육훈련 방안 등을 설계하게 된다.

이득조절 기반 광섬유 분산 음향 감지 센서를 이용한 감시 시스템 및 방법’ 등 총 3개의 특허를 출원했다. (주)에니트는 FOAE 센서는 벨브 건전성 모니터링, 구조물 건전성 모니터링, 외곽침입탐지 시스템 등 다양한 사회기반 시설에 적용할 수 있었다”며 “올해 하반기 독일 해외 법인 설립과 해외진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광주경총,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운영기관 선정

광주·전남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광주경총(회장 김봉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프로그램은 취업 경험이 없거나 부족해 취업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구직의욕을 고취시키고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광주경총은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

지 총 1,077명의 참여자와 470개의 기업에 일 경험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광주경총은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사업 대상 지역은 광주시와 전남 일부(곡성·구례·나주·담양·영광·장성·함평·화순)이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피보

협사 수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이다. 체험형 참여기업은 1일 2만2,000원, 인턴형 참여기업은 월 최대 191만 원을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터넷(www.kua.go.kr)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문의는 광주경총 노동경제정책본부(062-654-3426)로 연락하면 된다. /황애란 기자



저작권 침해 NO 틈새없는 저작권 서비스 YES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는 전남 소재 중소기업의 올바른 저작권 사용을 위해 저작권 등록부터 사업화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저작권 상담

실무상담,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등 지원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비용 지원



저작권 육성지원

시제품 제작,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지원



SW 관리체계 컨설팅

SW관리방안 컨설팅 지원



전남저작권서비스센터